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 스승의 대원인 전 인류의 행복을 제자가 계승!

당토(唐土)에 용문(龍門)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높이가 십장(十丈), 떨어지는 물이 강병(强兵)이 화살을 내리 쏘는 것 보다도 빠르니라. 이 폭포에 많은 봉어가 오르려고 하는데, 봉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올라가면 용이 되느니라.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십 년, 이십 년에 하나도 오르는 일이 없더라.

혹은 급류에 되밀려 오고 혹은 독수라매소리개울빠미에게 먹히고, 혹은 십정(十丁)의 폭포의 죄우에 어부들이 늘어서 있어서 혹은 망(網)을 치고 혹은 퍼내어 잡고 혹은 쏘아 잡는 자도 있으니, 물고기가 용이 되기란 이와 같으니라. (중략) 부처가 되는 길도 이것에 못지 않으니, 물고기가 용문을 오르고 지하의 자가 전상(殿上)에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용문의 고사(故事)

본문에서는 성불하려면 얼마나 많은 난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중국 ‘용문 폭포’의 고사와 일본 ‘다이러 씨의 역사’를 비유로 들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성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사례로 불전에서 사리불의 과거세에 퇴전한 일 등을 드셨습니다.

먼저 ‘용문’은 중국의 전설적인 폭포입니다. 황하의 상류나 중류에 있으며 이곳을 타고 끝까지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는 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본문에서 높이 10장(약30미터), 길이 10정(약1킬로미터)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폭포의 이미지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서(1077쪽, 1377쪽)에는 높이 100장(약 300미터)이라고 천태산에 있다고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격류의 압력이 강해 많은 물고기가 아무리 오르려 해도 떠밀려 내려오고, 게다가 큰 새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넘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뇌운(雷雲)이나 비를 지배하는 ‘용’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신양명이나 본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어려운 관문을 ‘등용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 고사에서 유래합니다. 이 고사는 중국 사기 <<후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성인은 도키미쓰에게 “불도수행을 완수한다는 것도 물고기가 용문 폭포를 올라 용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떠미는 ‘급류’는 오탁악세의 시대상에 비유했고, 목숨을 노리는 새나 어부는 성불을 방해하는 ‘삼장사마’나 ‘삼류의 강적’에 비유했습니다.

악세 말법에 신심을 관찰하는 일은 격류에 맞서 상류에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간의 무명(無明)과 번뇌는 저항하기 힘든 힘을 지녔습니다. 석존은 그것을 격류로 비유했습니다.

더구나 대성인은 언뜻 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지혜를 번뇌가 삼켜 번뇌의 힘이 더욱 비대해지고, 악의 힘으로 맹위를 떨치는 시대가 말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어서1465쪽) 이런 시대에 신심을 관찰하는 것은 이만 저만한 난사(難事)가 아니기 때문에 사제의 유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체동심의 화합승이 반드시 필요함

니다.

창기학회에는 난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사제의 유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불이의 신심으로 생명을 철저히 연마한 서민의 왕자들이 견고한 이체동심으로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심을 훌륭히 관찰하고 생명을 철저히 연마해, 그야말로 폭포를 끝까지 올라 승천하는 용처럼 당당한 인생을 걷는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 습니다.

악지식을 두려워하라

용은 용 나름대로 비를 내려야 하는 노고가 있습니다. 이 노고를 고뇌로 받아들일지, 사명으로 받아들일지... 이 차이가 악지식에 패하는가, 성불하는가의 차이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만이 중요'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본문에 나타난 '대원' 입니다.

이렇게면 법화경의 수행을 완수한다는 것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고뇌를 짊어지고, 더욱 큰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명을 기뻐하며 용감하게 짊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굳이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세요!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용감하게 후계의 용문을 끝까지 올라가세요!” 하고 분기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묘법을 수지한 우리의 '대원에 사는 인생' 입니다.